

뇌하수체종양에 의한 선단비대증 얼굴의 턱교정수술

김재승·장현호
서울중앙병원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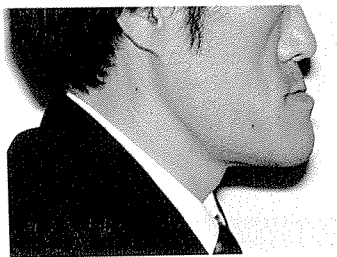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어 과다하게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은 성인에 있어서 선단비대증을 초래한다. 선단비대증은 손, 발, 얼굴의 골격과 연조직에 변화를 일으키며, 심장, 갑상선, 간 등의 주요장기를 확장시키며 질병을 초래한다.

얼굴의 골격변화를 보면, 눈위의 이마부분(supraorbital ridge)이 돌출되고, 부비동의 크기가 증가되고, 하악골이 과도하게 돌출되어 하악전돌증이 된다. 얼굴의 연조직에서는 코, 입술, 귀 외 혀의 크기가 커지고, 피부도 두꺼워지게 된다. 이러한 얼굴을 Acromegalic face 또는 Simian face라고 한다.

선단비대증(Acromegaly)은 근본적으로 뇌하수체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치료되는데, 과분비

되던 성장호르몬이 수정되더라도 일단 변화된 얼굴 모습은 원래의 상대로 회복되기는 힘들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조직은 약간 개선되나 얼굴의 골격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선단비대증환자에 있어서 턱교정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요하는 것이 전신적 상태로 심장기능이상, 당뇨, 기도이상 등이 있는가에 대하여 관련과와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환자는 심한 선단비대증 얼굴(Acromegalic Face)로 상악을 전상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을 후상방으로 이동 위치시킴으로써 상하악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수정하였고 혀의 중간 부위를 절제한 결과 정상적인 얼굴로 개선된 증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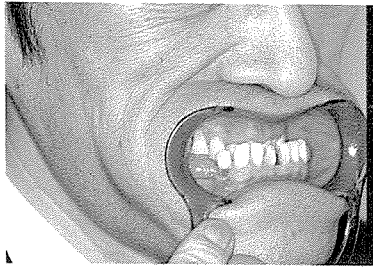


수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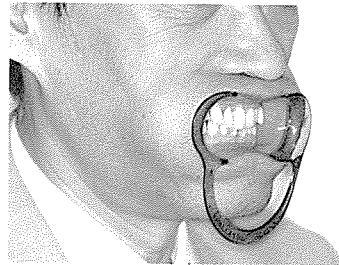


수술 후

그림 1. 수술 전의 옆모습으로 심한 Dish Face 양상이 수술 후 정상적으로 개선되었다(상악을 전방, 상방으로 7mm, 5mm 이동 위치시켰고, 하악은 후방, 상방으로 16mm, 5mm 이동 위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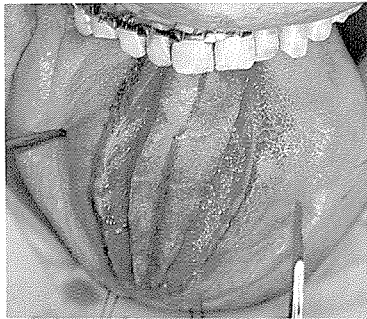


수술 전



수술 후

그림 2. 하악골과 혀의 과다성장으로 치아의 심한 반대교합이 있었으며 수술로써 상악치아관계를 개선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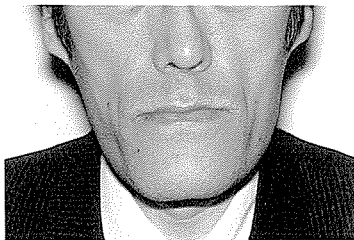


수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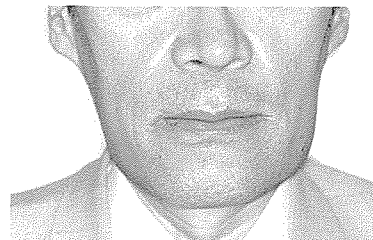


수술 후

그림 3. 턱교정수술로써 감소시킨 구강에 혀를 적응시키고 혀에 의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semi-keyhole 모양의 부분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수술 후

그림 4. 상악동의 확장으로 좁아진 비강을 확장시켜서 수술후에 비호흡을 원활히 개선시켰다.